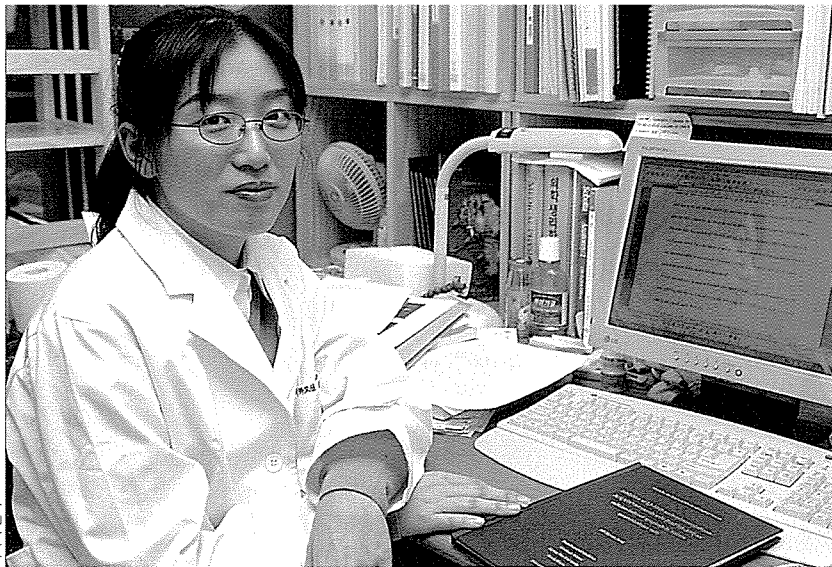


국 제과학논문 인용색인(SCI)에 등록된 학술지에 2년 동안 무려 37편의 논문을 게재한 20대 석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경희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장미현(27세) 씨. 장 씨가 발표한 논문 수는 같은 기간에 일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 수의 10배를 넘는 수준으로,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.



과학과 문명

2년이라는 석사 과정 동안 37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는데, 논문을 많이 쓰는 이유와 본인만의 잘 쓰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.

논문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노출시켜 그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일종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말이지요. 즉 논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어요. 물론 실험 결과가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, 이것 역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비결이라... 새로 논문을 쓰기 전에 기존 논문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시작합니다. 그 결과가 제 생각과 일치하면 정말로 뿌듯해요. 실험을 여러 번 한 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때에도 기분이 좋아요.

그동안 쓴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

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신경 생성 분야인데, 신경세포도 재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학설로 인정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쥐에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투입시킨 후 신경세포 생성부위를 관찰하면, 생성된 신경세포가 정상 쥐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어요. 이러한 경우에 침술이나 한약제가 신경세포 생성 속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. 37편 중 제가 담당한 18편은 제 이름이 책임저자로 올라가 있고, 나머지는 공동저자에 포함되어 있어요.

“논문은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”

2년 동안 37편 논문 쓴 장미현 석사

올해 학위수여식에서 석사과정 의학계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...

학위논문으로 카페인과 관련된 논문을 제출했어요. 이 논문으로 상까지 받게 되었는데, 흔히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고들 하잖아요. 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(웃음).

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해 한 마디 하신다면?

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위해 기존의 논문을 찾을 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쓴 논문이 많이 보여요. 그만큼 과학자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뜻이겠죠. 하지만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. 실험 자재나 시설 등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☺

글_ 허주희 | 사이언스올제 기자

장미현 석사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뇌신경 생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. 올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.